

추포 황신의 관직생활과 정치활동

임선빈

역사지식정보센터 대표, 한국사 전공

ysb7340@empal.com

- I. 머리말
 - II. 황신의 가계와 초기 사환
 - III. 임진왜란 당시의 관직생활
 - IV. 임진왜란 이후 선조대의 정치활동
 - V. 광해군대의 영욕과 사후 추숭
 - VI. 맺음말
-

I. 머리말

황신(黃愼, 1562~1617)은 조선 중기 선조~광해군대에 활동한 문신 관료이다. 명종대에 태어나, 선조대에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갔으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일본에 통신사로 다녀왔고, 선조 후반기를 거쳐, 광해군 재위 중엽까지 살다간 인물이다. 본고는 이러한 황신의 관직생활과 정치활동을 살핀 글이다.¹

조선시대 관직자의 관직 생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문집의 행장, 연보, 비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행장은 죽은 사람의 문생이나 친구, 옛날 동료, 아니면 그 아들이 죽은 사람의 세계(世系)·성명·자호·관향(貫鄉)·관작(官爵)·생졸연월·자손록 및 평생의 언행 등을 서술하여 후일 사관(史官)들이 역사를 편찬하는 사료 또는 죽은 사람의 명문(銘文)·만장(輓狀)·비지(碑誌)·전기(傳記) 등을 제작할 때에 자료로 제공하려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² 이 행장을 기초로 하여 묘지명이나 연보 등이 작성된다. 행장이나 묘지명, 연보 등은 대상 인물의 지인이나, 문인, 후손들이 주로 작성한다. 그런데 황신은 행장이나 비문의 작성 경위가 다소 복잡하다.

먼저 황신의 행장은 월사 이정귀(李廷龜, 1564~1635)가 작성했다. 그런데

※ 본고는 2022년 12월 7일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이 주관한 “추포 황신(黃愼) 통신 사행과 일본인식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1 황愼에 대해서는 그동안 박우훈과 방기철에 의해 그의 문학과 대일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황신의 관직생활과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우훈, 「추포 황신의 삶과 문학」, 『한문학논집』 12(1994), 361~387쪽; 방기철, 「추포 황신의 대일인식」, 『한국 사상과 문화』 74(2014), 131~154쪽.
- 2 狀은 모양이라는 뜻으로 행동거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장이란 죽은 사람의 행실을 간명하게 써서 보는 이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직접 보는 것처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사명이 있다.

이정귀는 행장의 말미에서 '나는 공과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낸 터라 서로 간담(肝膽)을 환히 보며 백발이 되도록 우의를 변치 않았고 반생 동안의 영락(榮落)도 대략 서로 같으니, 환난을 함께하고 사생(死生)에 후사(後事)를 부탁하는 의리가 있다. 지금 그의 시호(諡號)를 위한 행장을 짓는 일을 정리상 사양하지 못할 바가 있지만 차마 쓰지는 못하겠다. 공의 사위 사인(舍人) 심광세(沈光世)에게 예전에 지은 가장(家狀)이 있는데, 아직 조정에 바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을 이상과 같이 조금 산삭(刪削)하고 윤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이정귀가 찬한 황신의 행장은 황신의 사위 심광세(1577~1624)가 작성한 가장에 다소의 첨삭을 가한 것이다.³

황신의 신도비문은 상촌 신흘(申欽, 1566~1628)이 찬했다. 황신의 계자(繼子)인 황일호(黃一皓, 1588~1641)가 삼년상을 마친 후 뇌사(誄詞)를 지었던 신흘을 찾아가서, "우리 선군께서 살아계실 때는 오직 당신만을 벗 삼으셨고 우리 선군께서 세상을 하직하실 때도 오직 당신은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군의 벗을 구해볼 때 당신만한 분이 없으니, 우리 선군을 후세에 소멸되지 않게 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행히 천신(天神)의 도움으로 벼슬이 복구되고 장사를 예법대로 치렀으니, 마땅히 신도(神道)에 비석을 세워 사적을 갖추 실어야겠습니다. 사양하지 마소서."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이 비명(碑銘)은 광해군 재위 시기에 작성된 것이므로 광해군을 금상(今上)이라고 지칭하고, 위성공신 포상내용도 적고 있다.⁴ 따라서 인조의 정변 이후에는 기휘된 부분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었다.

그리하여 황신의 손자[황일호의季子]인 황진(黃璉, 1634~1666)이 우암

3 『月沙集』, 卷51 「秋浦黃公行狀」. 李廷龜는 황신이 죽은 지 7개월 후인 광해 9년 10월에 글을 지어 황신을 제사하였고, 그 후에 행장을 지었다[『월사집』 연보 권1, 만력 45년 정사(1617, 광해군 9) 선생 54세 10월. 『월사집』 권55 祭黃秋浦文]. 행장을 지은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심광세가 가장을 찬한 후로 광해군 재위 시기였다.

4 『象村稿』, 卷26 「神道碑 秋浦黃公神道碑銘(并序)」.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찾아가서, “상촌이 찬한 비명(碑銘)은 광해 때에 작성된 것으로 기휘(忌諱)된 부분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으므로, 가형(家兄)이 일찍이 청음선생을 뵈고 비명을 청하려다가 마음대로 되지 못하여 지금 이 일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황진은 송시열이 비문을 찬하기 전에 죽었다. 그리고 황진의 장형인 황윤(黃玗, 1623~1688)이 다시 송시열을 찾아가서 위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망제(亡弟)의 성의를 어찌 차마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부탁함으로써, 송시열의 신도비문 찬술이 이루어졌다.⁵ 송시열이 찬한 비문은 황신 사후(死後) 2세대가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 황신의 행장도 명재 윤증(尹拯, 1629~1714)이 다시 찬했다. 윤증의 설명에 의하면, 처음에 신흘이 비명을 지었으나 광해군 때에 지었으므로 내용 중에 숨긴 것이 많았으며, 심광세가 가장을 짓고 이정귀가 시장(識狀)을 지었으나 혹자는 그 소략함을 단점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런데 1668년 5월에 이선(李選, 1632~1692)이 『추포계년록(秋浦繫年錄)』 2권을 지었다. 이선은 황일호의 사위였으니, 황신에게는 손녀서(孫女婿)였다. 아마 이를 빌미로 황윤이 윤증에게 황신의 행장을 부탁한 듯하다. 윤증은 여러 사람들이 지은 글을 가져다 모은 뒤에 합쳐서 한 통(通)의 행장을 지어 후세로 하여금 고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⁶ 따라서 송시열의 신도비문과 윤증의 행장에는 황신이 죽은 뒤 2세대에 걸쳐 이루어진 후대인의 기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역사적 실재(實在)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내용도 섞여 있다.

이상의 황신 사후에 작성된 행장이나 신도비문은 작성자와 시대적 상황에 따른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광해군과 인조라는 상반된 정치적

5 『宋子大全』, 卷156 「碑 秋浦黃公神道碑銘(并序)」.

6 『明齋先生遺稿』, 卷42 「行狀 秋浦先生黃公行狀」.

상황과 당파간의 진영논리가 반영된 당쟁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황신의 신후문(身後文) 활용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조선시대 인물들의 관직 제수와 활동을 살필 때, 실록의 기록은 공적인 국가기관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행장에 비해 보다 객관성을 지닌다. 그러나 선조실록의 전반부 기록은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작성되어 춘추관에 보관되던 시정기가 임진왜란에 의해 전소되었고, 임진왜란 전쟁 중에는 생산된 국가 공문서의 취합이 여의치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지닌다. 이 점에서 연대기 자료인 실록의 보완자료로 관직 임명자료인 고문서 고신(告身)을 적극 활용한다면, 개인의 관직생활에 대해서 생생한 모습을 그려낼 수 있으며, 당대 관료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실상도 엿볼 수 있다.⁷

사실 한 인물의 관직생활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자료는 고문서 형태로 남아 있는 고신(告身)이다.⁸ 『경국대전』의 고신식에 의하면, 고신에는 기본적으로 성명과 제수되는 품계 및 관직명, 임명 날짜 등이 기재된다. 고신은 이를 받고 관직에 임명된 당사자나 그 후손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문서이기 때문에 집안에 잘 보존되어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고신에 담겨있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그동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⁹ 하지만 고신을 고문서학의

7 필자는 고신을 적극 활용하여 16세기 인물인 행당 윤복의 관직생활을 살펴본 적이 있다. 임선빈, 「16세기 行堂 尹復의 관직생활: 告身 활용을 위한 제언」, 『역사민속학』 54(2018), 183~216쪽.

8 告身은 관리에게 품계나 관직을 수여하는 증서이다. 고신은 중국 당나라에서 관료의 임명장으로 사용된 역사적 용어로, 고려조부터 관리의 품계나 관직을 주는 사령장을 의미했다. 조선시대에는 초기의 정비를 거쳐 『경국대전』에 문무관 4품 이상의 고신식과 문무관 5품 이하의 고신식, 당상관 처의 고신식, 3품 이하 처 고신식으로 문서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研究』 9·10(1996), 53~65쪽;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9 고신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정구복과 임선빈의 위의 논문 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矢木毅, 「高麗時代の銓選と告身」, 『東洋史研究』 59-2(2000), 1~30쪽; 심영

관점만이 아니라, 역사학적 관점에서 유관자료와 함께 적절히 활용한다면, 조선시대의 관직생활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¹⁰ 나아가 고신교지와 연대기 자료를 보완적으로 이용하면, 보다 세밀한 관력과 함께 구체적인 임명 날짜 등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관직자의 일생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황신의 관련 고신교서는 후손들이 잘 보존해 오다가, 1996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하였고, 현재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다.¹¹ 본고는 연대기 자료인 실록을 분석하면서, 황신의 고신교서를 적극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
- 환, 「朝鮮初期 草書告身 研究」, 『古文書研究』 24(2004), 181~204쪽; 沈永煥, 「高麗 景宗元年(975) 金傳告身 分析」, 『書誌學報』 31(2007), 87~113쪽;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 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研究』 30(2007), 93~124쪽; 박성호, 「현재 전하고 있는 王旨의 眞僞 고찰」, 『정신문화연구』 33(3)(2010), 171~202쪽; 이상현, 「대역죄인 告身の 殘存事由에 대한 일고찰: 김종직·정인홍 고신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3(2013), 101~129쪽; 박성호, 「새로 발견된 김한계, 배임 朝謝文書와 조선초기 오품이하 告身の 변천」, 『국학연구』 32(2017), 49~89쪽; 이승현, 「조선 초기 고신 추탈 및 환급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57(2018), 77~105쪽; 노인환, 「조선 중기 무신 나덕현의 관직 활동과 현양: 나주 나주나씨 나덕현의 고문서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61(2021), 145~178쪽;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신: 조선시대의 임명문서 읽기』(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이들은 대부분 고문서학의 관점에서 주목했고, 고신을 역사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글은 많지 않다.
- 10 고신도 후손들이 신분상승을 꾀하기 위해 조상의 고신을 위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에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고신의 활용에도 철저한 진위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 11 황신의 후손들이 400여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1,007점에 달하는 창원황씨가 고문서가 1996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1998년에 『창원황씨 고문서』 자료집도 발간되었다.

II. 황신의 가계와 초기 사환

황신은 창원황씨(昌原黃氏)이다.¹² 창원황씨의 시조는 황석기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황신까지의 세계는 (시조)황석기(黃石奇, ?~1364)-(6대조)황창(黃昌)-(5대조)황선경(黃善慶)-(고조)황예헌(黃禮軒)-(증조)황형(黃衡·무과, 1459~1520)-(조부)황원(黃瑗)-(부)황대수(黃大受·문과, 1543~1571)-황신(黃愼)으로 이어진다.

황신의 증조부인 황형(黃衡)은 1480년(성종 11) 무과에 급제하고, 다시 1486년(성종 17) 상서원 판관으로 무과 중시에 장원으로 급제했으며¹³, 의주목사·회령부사·함경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510년(중종 5)에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방어사가 되어 제포(齊浦)에서 왜적을 크게 무찌르고, 경상도병마절도사가 되었으며, 그 뒤 도총관·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를 거쳐, 1512년 평안도 변방에서 야인이 반란을 일으키자 순변사로 나가 이를 진압하였고, 이어서 평안도·함경북도의 병마절도사를 거쳐, 공조판서에 이르렀다.¹⁴

12 昌原은 경상도에 있으며, 고려 후기의 義昌縣과 會原縣을 태종 8년(1408)에 합하여 창원부로 만들고, 1415년에 다시 도호부로 고친 고을 이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창원도호부의 토성으로 義昌에 孔·黃·朴·玄이 수록되어 있다.

13 『성종실록』 권196, 성종 17년 10월 24일(을미).

14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5월 18일(임진). 동 권37, 중종 14년 11월 25일(을묘). 1520년(중종 15)에 공조판서로 출한 황형의 실록 줄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론이 수록되어 있다. ‘사신은 논한다. 황형은 武藝에 능하고 策略이 많아 將帥의 재목이었다. 성종조에 무과를 거쳐 나왔는데, 풍채가 험칙하고 氣宇가 비범하였다. 오래 도록 서북 지방을 진무하였었는데 胡인들이 두려워하여 자기 아들의 이름을 황형이라고 지은 자도 있었다. 경오년[1510, 중종 5] 제포의 왜란 때에는 힘써 싸워 유담년과 함께 首功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본디 操行이 없었으므로 재물을 탐하고 색을 좋아했으며,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2월 13일(정유).

황형의 아들로는 찬(瓚), 침(琛), 유(瑜), 원(瑗), 기(琦), 민(珉), 우(瑀), 무(弼) 등이 있었으며, 다시 황원(黃瑗)에게는 6남매[4녀 2남]가 있었는데, 다섯째 [둘째 아들] 황대수가 황신의 부친이다.¹⁵ 황대수(黃大受, 1534~1571)는 1555년(명종 10) 사마시에 입격하고, 1564년(명종 19)에 문과에 급제하였다.¹⁶ 승문원 권지정자를 거쳐, 승정원 주서로 있던 1567년에 명종의 후계자로 덕흥군의 제3자 하성군을 선택하였는데, 제삼자(第三子)의 ‘삼’자를 ‘參’자로 써서 왕위 후계자를 선택하는데 무리가 없게 하는 등 처변(處變)을 잘하여 당시의 재상인 윤두수·노수신 등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¹⁷ 황대수의 관직은 병조정랑에 이르렀는데, 1571년(선조 4)에 경차관으로 영남에 가는 도중 성주 객사에서 말에서 떨어져 38세의 나이로 타계했다.¹⁸ 이때 황신의 나이는 겨우 10세에 불과했다.

황신은 1562년(명종 17)에 황대수와 곽회영(郭懷英)¹⁹의 딸 사이에서 한양

-
- 15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는 이들 남매에 대한 「同生和會文記」가 보존되어 있다. 이 문기는 황원의 둘째 부인인 무송윤씨가 죽은 지 3년상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6남매에게 노비를 균등히 분배하고 장남인 황대수에게는 특별히 봉사조로 아이고개(아현)에 있는 집 1채와 강화에 있는 논 20마지기 및 노비를 더 지급하고 있다. 『창원황씨고문서』(국립민속박물관, 1998).
- 16 황대수 이후에는 黃愼[子]-(繼子)黃一皓[孫]-黃玠[曾孫]의 4대가 문과에 급제했다.
- 17 이 고사는 울곡 이이의 경연일기인 「석담일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1773년(영조 49)에 영조는 이 사건을 소환하여 故 正郎 黃大受에게 우의정을 증직하고, 승지를 보내서 그 묘에 致祭하였으며, 또 그 자손에게는 벼슬을 내리게 하였다. 『영조실록』 권120, 영조 49년 3월 14일(계묘). 그리고 1854년(철종 5)에는 황대수에게 ‘敏翼’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승정원일기』 2561책 (탈초본 123책) 철종 5년 11월 16일(신사).
- 18 『선조실록』 권5, 선조 4년 6월 4일(갑오).
- 19 郭懷英은 중종 28년(1533)의 문과에서 처음에는 講經과 製述에서 모두 入格한 12인으로서 복시의 3등 안에 포함되어 草榜에 올랐으나, 다시 합격 기준을 通計하는 방식으로 고쳐서 정한 榜(改出他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에 앞에서 합격하였다가 뒤에 떨어진 자는 郭懷英과 金彦傳이고, 앞에서 떨어졌다가 뒤에 합격한 자는 윤원형·민구·박봉린·남국숙이었다. 『중종실록』 권74, 중종 28년 4월 29일(신축). 그 후 초방에 올랐다가 떨어진 곽회영은 1546년(명종 1)의 식년시에서 병과 2위 [12/33]로 급제하였으나(당시 48세), 실록에서의 관직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에서 태어났다.²⁰ 10세에 부친상을 당했으며, 15세(1576, 선조 9)에 종실 원천군(原川君) 이휘(李徽)의 외동딸과 혼인하였다. 21세(1582, 선조 15)에 진사시에 3등 51위(81/100)로 입격하였고, 22세(1583, 선조 16)에 성혼의 문하에 들어갔다.

황신은 1588년(선조 21, 27세)에 알성시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황신이 급제한 과거는 종계변무(宗系辨誣)의 해결로 인해 실시된 알성시였다. 종계변무는 명의 『대명회전』과 『명태조실록』에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고려 권신 이인임(李仁任)의 아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시정하기 위한 외교 교섭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왕실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중대 사안이었으나, 명은 태조 홍무제(洪武帝)의 유훈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명분을 들어 조선의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않았다. 조선은 국초부터 무려 200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주청사를 파견하여 시정하려는 외교적 노력에 국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중종대 『대명회전』이 전래되면서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마침내 1584년(선조 17) 황정욱(黃廷域) 등이 종계변무주청사로 갔을 때 정정하기로 합의를 본 후, 1588년(선조 21) 사은사 유흥이 관련 내용이 수정된 만력중수본(萬曆重修本) 『대명회전』을 가지고 귀국하였다.²¹

『목재일기』에서는 가정 43년(1564년, 명종 19) 기록에 '神主木敬差官郭懷英來見'이 확인되고(『默齋日記』下(한국사료총서 제41집), 10冊 嘉靖四十三年 甲子歲 季冬十二月 大丁丑), 이정귀가 작성한 황신의 행장에서는 곽회영의 관직을 奉常寺 正이라고 하였다.

20 『사마방목』의 황신 거주지는 한성(京)이다.

21 권인용, 「명중기 조선의 종계변무와 대명외교」, 『명청사연구』 24(2005); 김경록, 「조선초기 종계변무의 전개양상과 대명관계」, 『국사관론총』 108(2006). 사은사 유흥이 대명회전을 가져와 입계한 것은 4월 24일(정축)이었다. 당시 명나라의 『대명회전』이 거의 완성되어 간다 하여 선조는 유흥으로 하여금 적극 청해서 얻어오게 하였다. 유흥이 禮部를 찾아가 咨文을 드리고 이를 청하였는데, 예부에서는 아직 御覽을 거치지 않아서 먼저 주기가 어렵다 하였다. 유흥이 일행을 거느리고 피눈물

선조는 5월 29일(신해)에 성균관 문묘에 행차하여 알성(謁聖)하고 향례(享禮)를 행한 뒤, 명륜당에 입어하여 시제(試題)를 내고, 다시 하련대(下輦臺)에 입어하여 무사(武士)를 시험하였으며, 진사 황신 등 11명과 무사 20명을 뽑았다.²² 문과의 시제는 ‘한나라 정중이 군사마에 제수된 것에 사례하다[漢鄭衆謝拜軍司馬]’로 표문(表文)을 작성하는 것이었다.²³ 왕이 친림(親臨)하여 거행되는 알성시이므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었으며, 시험 당일에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급제자는 갑과 1인, 을과 1인, 병과 9인으로 모두 11인이었다.²⁴

황신은 알성시에서 장원으로 급제했기 때문에 곧바로 종6품 실직에 임명되었다. 이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까지 황신의 초기 관직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²⁵

표1-선조대 황신의 초기 관직

왕력 (서력)	나이	품계	본직	겸직	비고
선조 21 (1588)	27	선교랑 [종6품]	의영고주부[종6품]		5.29. 알성시 급제[장원]/선조 실록/선조수정실록/행장
			사헌부감찰[정6품]		행장(6월)
			(파직)		(8월)

을 흘리며 跪請하니, 尙書 沈鯉가 그 정성에 감동하여 즉시 題本을 갖추어 돌아가는 인편에 부치기를 주청하였고, 天子가 윤허하여 조선에 付卷이 특별히 하사되고, 또 칙서까지 내려졌다. 선조는 이날 慕華館에 나가 칙서를 맞이하고 權停禮에 의해 朝賀를 받았다. 『선조실록』 권22, 선조 21년 4월 24일(정축).

22 『선조실록』 권22, 선조 21년 5월 29일(신해).

23 황신이 작성한 시권은 필사된 고문서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추포집』에도 실려 있다. 『秋浦集』, 卷2, 科製四六附 漢鄭衆謝拜軍司馬.

24 『국조문과방목』(태학사), 1책 567~568쪽.

25 이 표는 실록과 고문서인 고신을 주로 활용하여 작성하고, 기타 행장이나 비문을 통해 보완하였다. 그리고 1차 자료인 고문서를 통해 확인되는 관직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다(이후의 표도 동일).

왕력 (서력)	나이	품계	본직	겸직	비고
선조 22 (1589)	28		음죽현감[종6품]		행장(2월)
			(파직)		(4월)
				성균관 학관	(5월)
			북도 병마평사[정6품]		행장(10월, 체직으로 미부임))
		통선랑 [정5품해]	행 호조좌랑[정6품]		12.22. 교첩 [≪忠毅校尉(서반정5품하)]
선조 23 (1590)	29		병조좌랑[정6품]	지제교	2월, 병조 좌랑. 지제교 겸대/행장
			사간원정언[정6품]		4월/선조수정실록 [제수/체직] 행장
			고산현감[종6품]		4월/선조수정실록 [特旨]
			고산현감[종6품]		5.24/선조실록.
선조 24 (1591)	30	봉렬대부 [정4품해]	행 고산현감[종6품]	겸 춘추관기사관	윤3.2. 고신교지. 수령으로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도록 한 조처[겸임사관(外史)]
		봉정대부 [정4품상]	행 고산현감	겸 춘추관기사관	윤3.14. 광국원종공신 3등에 추록되어 승품.
			(고산현감 파직)		7.2/선조실록, 7월/선조수정실록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 황신은 4관 분관 없이 곧 바로 종6품 실직에 제수되었다. 출륙(出六)을 한 것이다. 참하관에서 벗어나 참상관이 되는 출륙은 참외관 관료들에게는 넘기가 쉽지 않은 선이었다. 그러나 황신은 장원급제이기 때문에 27세의 젊은 나이에 참외관 경력 없이 곧 바로 참상관이 되었다.²⁶

이후 몇 년간 황신의 정확한 관직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1589년(선조 22, 28세) 12월의 교첩이 남아 있다. 충의교위 황신을 통선랑 행

26 16세기 尹復(1512~1577)의 경우에는 27세에 별시문과에서 15명의 합격자 가운데 2위(을과 1위, 亞元)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했음에도(중간에 부친상이라는 공백이 있기는 하였지만), 35세에 이르러서야 성균관 전직에 제수되어 출륙을 하기까지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임선빈, 앞의 논문.

호조좌랑에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충의교위는 서반 정5품 하계이고, 통선랑은 동반 정5품 하계이다. 문과에 급제한 지 1년여 만에 황신은 품계가 동반 정5품에 이르렀고, 관직은 호조 좌랑이라는 육조의 중요한 실무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병조 좌랑으로 옮겼다가,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모두 정6품직이다. 그리고 지제교를 겸직하기 시작했다.²⁷ 그런데 황신은 언관인 사간원 정언으로 있으면서, 1590년(선조 23) 4월에 당시 영의정인 이산해가 1586년(선조 19) 이조 판서로 있을 적에 정여립을 김제군수로 의망(擬望)했던 것을 탄핵하다가²⁸, 외직인 고산현감으로 좌천되었다. 실록에는 이 인사가 선조의 특旨(特旨)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²⁹

황신은 외직에 근무하면서 1591년(선조 24, 30세)이 되자 현감으로서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였다. 고신교지에 의하면, 선조 24년 윤3월 2일에 봉렬대부 행 고산현감 겸 춘추관기사관에 제수되었다. 봉렬대부는 정4품 하계이다. 이제 품계가 대부로 승급한 것이다. 그리고 관직은 비록 현감에 불과하지만, 춘추관 기사관을 겸임하는 외사(外史)가 된 것이다. 기사관은 춘추관 소속의 정6품에서 정9품까지의 관직이다. 현감을 본직으로 하면서 춘추관의 시정기 작성에 참여하는 겸임사관이 된 것이다.³⁰

27 지제교는 외교문서인 表·箋과 왕이 내리는 敎書의 글을 짓는 일을 맡아보는 관원으로, 집현전이나 홍문관의 관원이 겸임하는 경우는 內知製敎라 하였고, 6품 이상의 문신 중에서 임명되는 경우는 外知製敎라 했다.

28 『선조실록』 권24, 선조 23년 4월 1일(임신).

29 正言黃愼特拜高山縣監[『선조실록』 권24, 선조 23년 5월 24일(갑자)]. 이는 아마 황신이 봉당으로 인한 피해를 당할까 선조가 미리 외직으로 보낸 조치가 아닌가 여겨진다.

30 外史란 도·부·군·현 등의 지방 행정 단위에서 모든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관을 말한다. 외사는 호구 수, 날씨 등 각각 보고 들은 실상에 따라서 原史에 근거할 만한 것을 기록했고, 날씨의 상태뿐만 아니라 민물, 풍속과 기타 기록할 만한 일들을 옛 규례에 따라 기록하였다. 이들이 작성한 문서 중 춘추관에 보고된 것은 경외의 대소 아문에서 보고된 문서와 함께 時政記로 작성되어 실록 편찬 시 이용되었다. 김경수, 「조선조 외사의 설치와 운영」, 『역사학보』 154(1997).

그리고 10여 일이 지난 윤3월 14일에는 정4품 상계인 봉정대부로 승품하였다. 이는 황신이 광국원종공신에 추록되었기 때문이다. 광국공신은 앞서 설명한 중계변무의 해결에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1590년(선조 23)에 내린 공신 훈명이다. 1등에 윤근수 등 3명, 2등에 홍성민 등 7명, 3등에 기대승 등 9명이었다. 그런데 황신은 중계변무가 해결되고 난 후 이를 기념하여 실시된 알성사에서 장원급제한 인물이다. 이를 치하하기 위해 광국원종공신 3등에 추록하고, 승품시킨 것으로 여겨진다.³¹

그런데 1591년(선조 24) 좌의정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세울 것을 주장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자(건저의(建儲議) 사건, 고산현감으로 1년 남짓 근무하던 황신도 정철 당여로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이후에는 강화의 촌장(村庄)으로 물러나 살았다.³²

Ⅲ. 임진왜란 당시의 관직생활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황신은 관직을 삭탈당한 상태로 강화도 촌장에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황신은 왜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자, 선조의 피난길을 미처 호종하지는 못했지만, 일신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의주까지 달려갔다. 그리고 7월 25일 이조에서는 황신을

31 1539년(중종 34)에 중계변무를 위한 주청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공로가 인정되어 그의 사후 43년 만에 광국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고 영의정에 추증된 權機(1478~1548)의 광국원종공신 녹권에 의하면, 광국원종공신은 모두 872명이다.

32 강화는 황신의 선대 묘소와 별서가 있던 세거지였으며, 조부인 황원이 돌아간 후에 상속인 6남매가 1563년에 작성한 화회문기에도 강화에 노비와 토지가 있었다. 최순권, 「창원황씨의 가계와 역사적 활동」, 『창원황씨 고문서』(국립민속박물관, 1998), 493쪽.

다시 등용하는 교첩을 발급했다. 황신이 1년 전에 파직으로 고신을 추탈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조에서는 고신 교지가 아닌 교첩을 발급한 것이다. 교첩은 전 현감(종6품) 황신을 승의랑(정6품) 세자시강원의 사서³³로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왕명을 받들어 이조 참판 구사맹과 좌랑 박동량이 수압하여 발급하였다.

황신은 왜란이 발발하면서 서둘러 왕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의 행조, 즉 분조에서 왕세자를 도우면서 관직 생활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당시 선조는 의주에 있었고, 왕세자는 7월 9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천(伊川)에 있었다. 1592년 6월 영변에서 분조를 형성한 광해군은 평안도와 황해도를 거쳐 강원도 이천에 이르렀으며, 이곳에서 의병 활동을 격려하는 등 전란 극복을 위해 노력하다가, 이천에 일본군이 출몰하자 8월 초에는 분조를 평안도 성천(成川)으로 옮겼으며, 이후 11월 초까지 성천에 머물면서 활동하였다. 아마 세자시강원 사서에 임명된 황신도 이 시기에 왕세자와 함께 활동했을 것이다. 표2는 임진왜란 당시 황신의 관직을 정리한 것이다.

표2-임진왜란 당시 황신의 관직

왕력 (서력)	나이	품계	본직	겸직	비고
선조 25 (1592)	31	승의랑 [정6품상]	세자시강원사서 [정6품]		7.25. 교첩
			8. 사간원 정언 [정6품]		8월, 정언이 되다. 8.13/선조실록, 등공 행조
선조 26 (1593)	32	봉정대부 [정4품상]	행 성균관전직 [정6품]	지제교 겸 세자시강원사서	2.13. 교지
		봉정대부	행 병조좌랑 [정6품]	지제교 겸 춘추관기사관 세자시강원사서	5.1. 교지
		봉정대부	행 성균관전직	지제교 겸 한학교수 세자시강원사서	7.20. 교지

33 세자시강원은 왕세자를 모시고 經史를 강의하며 道義를 가르치던 관서로 사서는 정6품의 관직이다.

왕력 (서력)	나이	품계	본직	겸직	비고
			8. 사헌부 지평 [정5품]		8.21/선조실록.
			사헌부 지평		10월/선조수정실록
		봉정대부	행 성균관직강 [정5품]	지제교 겸 한학교수 세자시강원사서	10.22. 교지
		중훈대부 [종3품해]	행 성균관직강	지제교 겸 한학교수 세자시강원사서	11.8. 교지
				원접사 이항복 종사관	윤11월. 행장
선조 27 (1594)	33	중직대부 [종3품상]	행 성균관직강	지제교 겸 세자시강원 사서 한학교수	1.30. 교지/ 별가(別加)
				(동궁 문안관)	3.10/선조실록.
		중직대부	행 성균관직강	지제교 겸 승문원교리 [종5품] 한학교수 세자 시강원사서	3.27. 교지
				도체찰사 윤두수 종사관	8월. 행장
		중직대부	행 병조정랑 [정5품]	지제교 겸 승문원교리 한학교수	11.26. 교지
		통훈대부 [정3품해]	행 병조정랑	지제교 겸 승문원교리 한학교수	12.27. 교지/ 사가(仕加)
선조 28 (1595)	34	통훈대부	행 성균관전직	지제교 겸 승문원교검 [정6품] 한학교수	1.21. 교지/교검-오자(?)
		통훈대부	행 사헌부장령	지제교 겸 승문원교감 [종4품] 한학교수	1.24. 교지 1.24/선조실록.
		통훈대부	사שמ시정 [정3품당해]	지제교 겸 승문원참교 [종3품] 한학교수	4.5. 교지
		통훈대부	세자시강원문학 [정5품]	지제교 겸 승문원교리 한학교수	4.11. 교지 4.11/선조실록.
				(명 심유격의 종사관)	4.19/선조실록. 7.17/선조 실록.
		통훈대부	군자감정 [정3품당해]	지제교 겸 승문원참교 한학교수	5.4. 교지
			(세자시강원문학)		5.6/선조실록. 6.15/선조 실록. 9.12/선조실록.
		통훈대부	사שמ시정	지제교 겸 승문원참교 한학교수 (접반사)	8.13. 교지/10.25, 11.3, 12.3/13/16/21/29 선조 실록.

왕력 (서력)	나이	품계	본직	겸직	비고
선조 29 (1596)	35	절충장군 [정3품 당 상-서반]	행 용양위 호군 [정4품]		2.28. 선조 일본에서 돌아 온 황신 인견 2.29. 교지
				지제교	2.29. 교지 /본직이 서반이 므로 지제교는 이조에서 별 도로 제수
			(행 호군)	(접반사)	4.13, 5.4, 17, 30, 6.12, 21, 23/선조실록.
			(접반사 첨지)		6.9/선조실록.
		통정대부 [정3품 당 상-동반]	돈령부도정 [정3품당상]	지제교	6.25. 교지 6.25/선조실록. [가치(嘉善)×] 6월/선조수정실록
				통신사	8월/선조수정실록 [일본행]
				통신사	12.21.복명 인견/실록 12월/선조수정실록
	가선대부 [종2품해]	행 돈령부도정		12.22. 교지 12.22./선조실록-가자	
선조 30 (1597)	36			(慶尙道諸陣慰撫使)	1.22/선조실록
				(경연 특진관)	2.18/선조실록
				(贊畫使)	2.21/선조실록
				(接伴使)	4.1/선조실록
		가선대부	전라도관찰사 [종2품]		7.3. 교지/이조 7.3/선조실록
				전라도 검 병마수군절도사	7.3. 교지/병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종2품]		7.4. 교지 *처 이씨를 정부인에 제수 [교지].
		가선대부	전라도관찰사		7.25. 교지/이조 7.25/선조실록 [이후 부임]
				전라도 검 병마수군절도사	7.25. 교지/병조
			*8.6. 교서[敎全羅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書]		
선조 31 (1598)	37		전라도관찰사		12.21/선조실록(재임)
			동지중추부사 [종2품]		12월. 동지중추부사가 되다.

1593년(선조 26) 2월 13일 황신이 받은 고신고지에 의하면, 제수받은 관직이 ‘봉정대부 행 성균관전적 지제교 겸 세자시강원사서’이다. 이때 받은 정4품 상계인 봉정대부는 황신이 임란 전 파직되기 직전의 품계이다. 드디어 예전의 품계로 돌아갔다. 그리고 5월에는 병조좌랑으로 옮기면서, 다시 춘추관 기사관도 겸직하였으며, 7월에는 한학교수를 겸직한다.³⁴ 조선 시대의 한학(漢學)은 역학(譯學) 중 하나인 중국어를 지칭한다. 한학은 대중국 외교의 중요성 때문에 역학 중에서 가장 중시되었다. 더군다나 1592년 12월부터 이여송(李如松)이 이끄는 43,000여 명의 명군(明軍)이 압록강을 건너와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이 시기 한학은 매우 중요했고, 특히 명군과 소통할 수 있는 통역관 양성이 시급했을 것이다.³⁵ 이러한 시기에 한학교수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황신은 중국어에도 능통했음을 알 수 있다.³⁶

황신은 1593년 8월에 사헌부 지평[정5품]을 거쳐, 10월에는 성균관 직강[정5품]이 되었으며, 11월에는 종3품 하계인 중훈대부로 승품하였다. 그리고 1594년(선조 27) 1월에는 다시 종3품 상계인 증직대부로 승품하였다.

34 사역원에 설치되어 있던 한학교수는 종6품직 4명으로 2명은 문신이 겸하도록 되어 있었다. 『경국대전』, 권1, 「이전 경관직 사역원」.

35 한학 생도의 정원은 사역원 35명, 평양부·의주목·황주목 각 30명으로 모두 125명에 달했다. 『경국대전』의 역학생도 정원은 漢學 125명 외에 蒙學 10명, 倭學 41명(사역원 15명, 齊浦·釜山浦 각 10명, 鹽浦 6명), 女眞學 60명(사역원 20명, 義州牧 5명, 昌城都護府 5명, 北靑都護府 10명, 理山郡·碧潼郡·渭源郡 각 5명, 滿浦 5명)으로 모두 236명이었다. 『경국대전』, 권3, 「예전 생도」.

36 황신은 선조 26년 봄부터 초가을까지 안주에서 經略 宋應昌과 경전 강론을 하기도 했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4일(무술). 행장에 의하면 당시 송응창이 咨文을 보내와 함께 道學을 강론하도록 선비를 뽑아달라고 하여, 문학 유몽인, 사서 황신, 설서 이정귀가 선발되어 참여했다. 그리고 황신은 후에 御前通事까지 지냈다. 한편, 황신은 문장에도 능하여 11월에는 申光弼·李魯·鄭經世·申欽·李廷龜·李垓·安大進·李春英·柳夢寅 등과 함께 製述文官으로 抄啓되었다. 『선조실록』 권44, 선조 26년 11월 2일(임자).

2개월 만에 다시 승품하였는데, 고신교지에서는 이것이 별가(別加)임을 밝히고 있다. 원래 순자법이 시행되고 있던 조선시대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승품은 6품 이상의 경우 근무일수(仕) 900일이 차야 승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자가 쉽지 않았다. 황신의 단기간 승품은 당시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황신이 무슨 공으로 별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 직전에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원접사 이항복의 종사관으로 활약한 공이 인정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황신은 1594년(선조 27) 12월에 정3품 하계인 통훈대부로 가자되었다. 고신교지에서는 이 승품이 사가(仕加)임을 밝히고 있다. 별가로 중직대부로 승품한지 만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통훈대부로 승품한 것이다. 통훈대부는 순자법에 의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품계인 문반의 계궁(階窮) 또는 자궁(資窮)에 해당한다.³⁷

통훈대부에 오른 이후인 1595년(선조 28) 황신의 관직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2월에 어전통사로 차출되어 활약하였고, 4월에는 명나라 유격 심유경의 종사관으로 왜영에 들어가 왜군의 정세를 정탐하기도 했다.³⁸ 이후에도 황신은 임진왜란이 장기화하면서 명나라 대표 심유경(沈惟敬)과 일본의 대표 고니시 유키나카(小西行長) 사이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여러 차례 진행하자, 명나라 유격(遊擊) 심유경의 접반관(接伴官)으로 2년 동안 적진에 있으면서 협상 자리에 참여하여 조선이 협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1595년(선조 28)에는 정3품 당하관 직책인 사삼시 정(正), 군자감 정과 같은 한 관서를 책임 맡는 장관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37 資窮은 품계를 의미하는 ‘資’와 끝을 의미하는 ‘窮’이 만나서 이루어진 용어로, 과거나 문음을 통해서 관직에 오른 이들이 일상적으로 오를 수 있는 참상관 최상위의 관직이었다. 통훈대부까지는 考滿에 따라서 참하관은 450일, 참상관은 900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인 평가에 의해서 진급이 가능하였다. 『경국대전』 권1, 「이전, 경관직」.

38 『선조실록』 권62, 선조 28년 4월 19일(신유).

1596년(선조 29) 2월에는 당상관으로 승품되었다. 조선사회에서 당하관에서 당상관으로 오르는 것은 근무 일수에 따른 정례적인 진급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당하관이 당상관에 오르는 것은 왕과 대신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관료들은 정3품 하계인 자궁에 이르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³⁹ 언제 당상관으로 승진할지 알 수 없었다. 심지어 국가적인 큰 경사에 모든 관원에게 자금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품계를 당상으로 올릴 수 없었으므로 아들 사위 손자 아우 조카[子·壻·孫·弟·姪] 등이 대신 자금을 받도록 하였다.⁴⁰ 그러나 황신은 통훈대부에 승품한 지 1년 만에 당상관이 되었다.

선조 29년에 황신이 받은 고신교지에는 2월에 받은 '절충장군 행 용양위 호군' 교지와 6월에 받은 '통정대부 돈령부 도정' 교지가 남아 있다. 절충장군과 통정대부는 각각 서반과 동반의 당상관 품계이다. 당상관이 된 이해에 황신은 명나라 유격 심유경의 접반사(接伴使)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다. 당시 일본 대표 고니시 유키나카가 7개 조건을 제시하여,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되고, 전쟁도 소강상태가 되자, 명나라에서 일본의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일본 국왕으로 봉할 사신을 일본에 보내면서, 조선에서도 그 자리에 참여할 사신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일본에 사신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모두 피하였는데, 선조가 황신을 일본 통신사에 임명하자 그는 의연하게 일본에 다녀왔다.⁴¹ 황신이 일본에서 돌아오자 대간에서는 왜적의 위협을

39 윤복의 경우 통정대부가 되기 전 통훈대부에 13년간이나 머물고 있었으며, 문과에 급제한 지 35년 만에 당상관이 되었다. 임선빈, 앞의 논문.

40 李成茂, 『朝鮮初期 兩班研究』(일조각, 1980), 155~156쪽; 최승희, 「조선시대 양반의 대가제」, 『진단학보』 60(1985).

41 황신이 선조 29년(1596) 8월 초순에서 11월 23일 사이에 명나라 冊封使 楊方亨과 沈惟敬을 따라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온 일을 月·日 순서로 기록한 『日本往還日記』가 있다.

두려워하여 조선의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고 탄핵하였다. 그러나 황신은 일본에서 협상을 반대하는 조선의 입장을 당당히 밝혔다.

선조는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황신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일본에서 돌아와 복명을 한 다음 날인 12월 22일에 종2품 하계인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가자하였다.⁴² 35세의 황신은 한 해 동안 당상관절충장군, 통정대부에 승품한 후, 다시 재상급 품계인 종2품직에 가자된 것이다. 사간원에서 황신의 가자가 적절치 않다고 개정하기를 거듭 아뢰었으나, 선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⁴³ 조선시대 2품 이상의 관직자에게는 많은 특전이 부여되었다. 초헌을 탈 수 있었고, 국왕이 부를 때에는 쇄마를 지급받았으며, 병이 심할 때에는 약재를 내려 주었고, 2품 이상 천첩자녀는 자기 비(婢)를 장예원에 바쳐 속신할 수도 있었다. 죄가 있어도 반드시 국왕에게 보고한 다음에 처결하였으며, 조상 3대를 추증 받을 수 있었다.⁴⁴ 35세의 황신은 이제 그러한 반열에 오른 것이다.

한편, 협상이 결렬되자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1596년(선조 29) 12월부터 일본군의 주력부대가 다시 부산에 상륙하기 시작해 이듬해인 1597년(선조 30) 4월까지 도합 14만 명이 넘는 전투 병력이 경상도 해안지대에 집결했고, 7월부터 일본군은 수륙 양면에서 전면적인 총공세를 취했다. 황신은 1월부터 경상도제진위무사가 되어 지역민과 장병을 위로하러 남쪽 지방을 다녀왔고⁴⁵, 2월에는 찬획사(贊畫使)가 되어 도체찰사 이원익을 도왔고⁴⁶, 분조(分朝)에서 세자 광해군을 보필하였으며, 여름에

42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22일(갑신).

43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23일(을유), 24일(병술), 25일(정해), 26일(무자).

44 이성무, 앞의 책, 93~95쪽. 특히 추증에 대해서는 「宗親及文武官 實職二品以上 追贈三代」(『經國大典』, 「吏典 追贈」).

45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1월 22일(계축), 23일(갑인).

46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21일(임오). 찬획사는 지방군의 조련과 군사 업무 감독을 위해 중앙에서 임시로 파견한 관원이다.

는 접반사로 활약했다.⁴⁷

그리고 남쪽 지방에 경보(警報)가 끊이지 않았으므로, 선조는 7월에 황신을 전라도관찰사에 임명하여 전장터가 되고 있던 전라도 지역을 믿고 맡겼다.⁴⁸ 관찰사도 외관직이기는 하지만, 종2품직이다. 조선시대의 관찰사는 병마수군절도사직을 당연직으로 겸하였다. 전라도관찰사에 제수된 황신도 전라도병마수군절도사직을 당연직으로 겸하였다. 그런데 관찰사와 절도사는 각각 동반직과 서반직이었기 때문에 인사부서도 이조와 병조로 달랐다. 따라서 황신도 전라도관찰사에 제수된 7월 3일과 7월 25일에 이조와 병조로부터 관찰사와 병마절도사에 제수하는 별도의 고신을 각각 받고 있다. 1598년(선조 31) 7월에는 황신의 전라도관찰사 1년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유임되었으며, 왜란이 모두 끝난 12월이 되어서야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어 조정으로 돌아왔다.

IV. 임진왜란 이후 선조대의 정치활동

7년간에 걸친 길고 긴 전란이 끝났다. 7년전 30세의 젊은 나이에 '봉정대부 행 고산현감 춘추관기사관'을 지내다가 삭탈관직되었던 황신은 전쟁이 발발하자 고신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7년 후인 37세에는 가선대부 전라도관찰사를 지내고 동지중추부사에까지 올랐다. 이제 황신은 7년 전의 단순한 실무관료가 아니었다. 국가의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정치관료가 되어 있었다.

47 『선조실록』 권87, 선조 30년 4월 1일(신유), 동 권88, 선조 30년 5월 9일(기해), 11일(신축), 19일(기유), 23일(계축).

48 『선조실록』 권90, 선조 30년 7월 3일(임진), 25일(갑인).

황신은 1599년(선조 32)에 호조 참판에 임명되었다.⁴⁹ 호조는 전후의 복구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관서이다. 그러나 이해 4월에 어머니 상(喪)을 당했다. 그리고 관직을 떠나 3년 동안 강화에서 여막살이를 했다. 표3은 임진왜란 이후 선조대 황신의 관직이다.

표3- 임진왜란 이후 선조대 황신의 관직

왕력 (서력)	나이	품계	본직	겸직	주요활동/비고
선조 32 (1599)	38	가선대부	<u>호조참판</u> [종2품]		2.15. 교지/이조 2.15./선조실록
				<u>겸 오위도총부부총관</u> [종2품]	2.18. 교지/병조
		가선대부	<u>행 의흥위상호군</u>		3.10. 교지
			4. 체직(모친상)		4월, 모친상을 당하다.
선조 34 (1601)	40	가선대부	<u>행 총좌위대호군</u>		6.22. 교지
		가선대부	<u>한성부우윤</u> [종2품]		7.5. 교지 7.5./선조실록
		가선대부	<u>행 시간원대사간</u> [정3품당상]		7.17. 교지 7.17/선조실록
		<u>가의를대부</u> [종2품상]	행 시간원대사간		8.13. 교지 8.13./선조실록-가자
		가의를대부	<u>사헌부대사헌</u> [종2품]		10.22. 교지 10.22/선조실록
			(대사헌)		12월/선조수정실록(사 직-체직)
선조 35 (1602)	41		(삭탈관직)		3.9./선조수정실록 [<u>罪籍에 올라 7년 간 廢固</u> - 鄭仁弘의 논계
선조 40 (1607)	46	가의를대부	<u>행 용양위부호군</u> [종4품]		윤6.5. 교지/서반직
선조 41 (1608)	47	가의를대부	<u>행 용양위부호군</u> [종4품]	<u>겸 오위도총부부총관</u>	2.29. 교지/서반직
		가의를대부	<u>행 용양위부사직</u> [종5품]		3.19. 교지/서반직
		가의를대부	<u>행 총무위사과</u> [정6품]		4.1. 교지/서반직

49 『선조실록』 권109, 선조 32년 2월 15일(을축).

황신은 모친상을 마치자, 1601년(선조 34) 7월에 한성부 우윤에 임명되었으며⁵⁰, 다시 사간원 대사간이 되었다.⁵¹ 그런데 이 시기에 길운절(吉雲節)의 역옥(逆獄) 사건이 발생했다.⁵² 길운절은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에 관련된 인물로, 1601년에 정여립의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던 소덕유(蘇德兪)를 찾아가 모반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소덕유의 처에게 알려지자, 길운절은 자신이 먼저 관에 나아가 고변하였고, 제주목사 조경(趙儼)이 소덕유 등을 체포하여 서울로 보내 처형하게 하였다. 길운절은 먼저 고변하였으므로 처음에는 용서를 받았지만,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지 못했음을 원망하다가 체포되어 참형에 처해졌다.⁵³ 8월까지 이에 대한 추국이 이루어졌고, 추국청 관원을 논상하면서 황신도 추국에 참여한 공으로 종2품 상계인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승품되었다.⁵⁴

가의대부 황신은 10월에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다.⁵⁵ 이때 문경호(文景虎)가 성혼을 비난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문경호는 복인 정인홍의 문인으로,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에는 광재우와 함께 의병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1601년 생원으로 대북파인 정인홍의 사주를 받아 소를 올려 처사 최영경의 죽음에 정철과 성혼이 주동이 되었다 하여 그들을 논척하였다. 성혼의 벼슬이 추가 삭탈되자, 대사헌으로 있던 황신은 그것이 모함임을 힘껏 변명하면서, 스승 성혼을 변호하고 복인과 동인을 공격하였으나, 결국 대사헌에서 체직되었다.

황신은 1602년(선조 35) 봄에 사은사로 명나라 북경에 갔었는데, 돌아오

50 『선조실록』 권139, 선조 34년 7월 5일(경자).

51 『선조실록』 권139, 선조 34년 7월 17일(임자).

52 『선조실록』 권139, 선조 34년 7월 18일(계축), 30일(을축).

53 『선조실록』 권140, 선조 34년 8월 1일(병인), 2일(정묘), 3일(무진), 7일(임신).

54 『선조실록』 권140, 선조 34년 8월 13일(무인).

55 『선조실록』 권142, 선조 34년 10월 22일(병술).

다가 어양(漁陽)에서 대사헌 정인홍의 탄핵을 받아 관작이 삭탈되었음을 알고, 곧장 강화로 돌아가 은거하였다. 선조수정실록에는 관작을 삭탈당한 황신에 대해 ‘황신은 본성이 강직하여 조정에 우뚝 서서 태평할 때나 위험할 때나 절개가 한결같아 다른 나라에서도 칭송을 들었다. 스승을 위해 원통함을 호소하다가 정인홍의 미움을 받게 되자 여러 군소배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인홍에 붙어서 배척하였으므로, 드디어 죄적(罪籍)에 올라 7년 간이나 폐고(廢固)당했다.’라는 사론이 실려 있다.⁵⁶

그 후 황신은 1605년(선조 38)에 임진왜란 때 세운 공이 인정되어 호성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 1607년(선조 40)에는 직첩도 환급(還給)되었다. 5년 만에 복관(復官)되어 가의대부 직첩을 받았으나, 관직은 서반적인 용양위부호군에 불과했으며, 조정에 나간 것도 아니었다. 황신은 이 시기에 부여의 촌사(村舍)로 옮겨 우거(寓居)하였다.⁵⁷

V. 광해군대의 영욕과 사후 추송

1608년 3월 16일 선조가 재위 4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3월 17일 광해군이 34세의 나이로 즉위했다. 황신은 광해군이 임진왜란 시기 왕세자로 분조를 이끌면서 전선의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할 때, 세자시강원의 사서·문학 등을 역임했었다. 광해군보다 13세 연상이었던 황신은 광해군의 왕세자 시절 스승이었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이틀 후인 3월 19일에 황신에게는

56 『선조수정실록』 권36, 선조 35년 3월 9일(신미).

57 『月沙集』, 卷51, 「行狀 秋浦黃公行狀」. 부여는 황신의 장인인 원천군 이휘로부터 받은 처번 재산이 있던 곳이었다. 이문현, 「16세기의 별급관행: 황신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8).

고신교지가 새로 발급되었다. 그리고 5월에는 호조참판직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황신은 스승인 성혼이 아직 죄적(罪籍)에 있다는 이유로 사직하고 부임하지 않았다.⁵⁸

6월에는 광해군의 습봉을 재차 청하는 진주사가 명나라에 갔는데, 황신이 진주부사로 차출되었다.⁵⁹ 당시 광해군은 임란시 왕세자로 분조를 이끌면서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으로부터 세자 책봉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었다. 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즉위한 후, 즉시 고부 청시 청승습사(告訃請謚請承襲使) 연릉부원군 이호민을 보냈으나⁶⁰, 명나라에서는 적자도 아니고 장자도 아닌 광해군의 승습을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차 습봉을 청하는 진주사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만 했다. 6월 5일에 진주사 이덕형, 부사 황신, 서장관 강홍립을 제수했으며⁶¹, 일행은 6월 20일에 출발했다.⁶² 황신에게는 7월에 진주부사에 부합하는 동지중추부사의 고신교지도 내려졌다. 표4는 광해군 대 황신의 관직이다.

58 『月沙集』, 권51, 行狀 秋浦黃公行狀. 『추포집』에는 황신이 무신년(1608) 5월에 광해군에게 올린 호조참판을 사직하는 상소가 실려 있다. 『秋浦集』, 권1, 疏劄, 辭戶曹參判疏(戊申五月).

59 행장에서는 여름에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대궐에 갔다가 진주부사에 차임되었다고 하였다.

60 2월 21일에 출발하여 4월 12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 광해 즉위년 2월 21일(무인), 동 권4, 광해 즉위년 5월 20일(을사). 上使는 延陵府院君 李好閔이었다.

61 『광해군일기[중초본]』 권5, 광해 즉위년 6월 5일(경신).

62 『광해군일기[중초본]』 권5, 광해 즉위년 6월 20일(을해).

표4-광해군대 황신의 관직

왕력 (서력)	나이	품계	본직	겸직	주요활동/비고
광해군 즉위 (1608)	47	가의대부	행 용양위부사직 [정5품]		3.19. 교지/서반직
		가의대부	행 충무위사과 [정6품]		4.1. 교지/서반직
				진주부사	6.5./광해군일기[중]-제수 6.20./광해군일기[중]-사신 출발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 [정2품]		7.3. 교지/서반직
				진주부사	12.17./광해군일기[중]-돌아옴
광해군 1 (1609)	48	자헌대부 [정2품하]	행 동지중추부사 [정2품]		1.5./광해군일기[중]- 가자 포상
			공조판서[정2품]	겸 체찰부사 동지 의금춘추관사	1.14./광해군일기[중]-제수 행장
				지의금부사	3.23./광해군일기[중]-제수
		자헌대부 [정2품하]	공조판서[정2품]	겸 지의금부사 [정2품]	3.23. 교지
			호조 판서[정2품]		9.6./광해군일기[중]-제수
				진흙부사	11.15./광해군일기[중]
		정헌대부 [정2품상]		어전통사	12.19./광해군일기[중]-가자
광해군 2 (1610)	49		호조판서		2.9, 3.4, 7.19, 8.30, 9.4, 11.19./광해군일기[중]
				館伴使	3.27./광해군일기[중]-임명:世 子襲封事로 온 太監 冉登 접대
					8.1./광해군일기[중]-가자[중국 사신요청]
				겸 동지의금부사	10.9./광해군일기[중]-임명
				체찰부사	11.19./광해군일기[중]-2년 전 부터 수행 중이던 체찰부사 체차.
			호조판서	제조	12.22./광해군일기[중]
광해군 3 (1611)	50		호조판서		2.15, 5.28, 7.7, 7.20, 11.18, 11.21, 12.29./광해군일기[중] -사직청(불운)

왕력 (서력)	나이	품계	본직	겸직	주요활동/비고
				동지춘추사	2.18./광해군일기[중]-사직청(윤허)
광해군 4 (1612)	51	승정대부 [중1품하]	호조판서		1.11./광해군일기[중]-가저[館件]
			호조판서		7.28. 11.3, 11.6./광해군일기[중]
				특진관	9.4, 10.1. /광해군일기[중]
광해군 5 (1613)	52		호조판서		2.9./광해군일기[중]-사직(불운)
		보국승록대부 [정1품하]		겸 호조판서	3.6./광해군일기[중]
		보국승록대부	회원부원군	겸 호조판서	3. 공신교서. 갈충진성동덕찬모 위성공신(2등) 으로 책훈.
				겸 호조판서(체차, 파직)	5.11./광해군일기[중]-체차 5.12./광해군일기[중]-파직 7.14./광해군일기[중]-放歸田里 8.15./광해군일기[중]-中途付處 10.4./광해군일기[중]-瓮津縣 유배
광해군 9 (1617)	56				3.14./광해군일기[중]-謫所[웅진]에서 출[출기].
	-	갈충진성동덕 찬모위성공신 보국승록대부	회원부원군	겸 호조판서	4.2./광해군일기[중]-謫所[웅진]에서 출[보고], 관작회복·禮葬.
	-	대광보국승록 대부[정1품상]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 예문관추추관 상감사 세자사	4.13. 추증교지

명나라에 갔던 책봉주청사(冊封奏請使)가 북경으로부터 한양으로 돌아와 광해군에게 복명한 것은 12월 17일이다.⁶³ 광해군은 다음 해 1월 초에 북경에 다녀온 사신들을 포상했는데, 부사로 다녀온 동지중추부사 황신에

63 『광해군일기(정초본)』 권11, 광해 즉위년 12월 17일(경오).

게는 가자와 함께 전 20결과 외거 노비 4구를 내렸다.⁶⁴ 이제 황신은 가의대부에서 정2품 하계인 자헌대부로 승품하였고, 공조판서에 제수되었다.⁶⁵ 정2품직인 판서는 조선시대에 구경(九卿)으로 간주되는 관직이다.⁶⁶ 이제 황신은 48세에 구경의 반열에까지 올랐다.

황신은 1609년(광해군 1) 9월에 공조에서 호조로 옮겨 호조판서를 맡았으며, 이 자리는 1613년(광해군 5) 5월에 파직당하기까지 5년 동안 옮기지 않고 재임하였다. 호조는 토지·호구·부세 등 국가 재정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관서이다. 전후복구를 위해서는 호조판서의 업무가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황신은 호조 판서로 재임하면서 전후의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고, 균전사(均田使)를 전국에 파견하여 양전(量田) 사업을 추진하여 토지구획을 정비하는 등 광해군 시대 경제 정책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1610년(광해군 2) 명나라 사신의 관반사가 되자 나날이 불어나는 사신 접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접대 규모를 줄이기도 했다.

한편, 황신의 관직은 이후 5년간이나 정2품직인 호조판서였지만, 그의

64 『광해군일기[정초본]』 권12, 광해 1년 1월 5일(무자).

65 『광해군일기[정초본]』 권12, 광해 1년 1월 14일(정유).

66 조선시대 九卿은 법제적인 명문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흔히 관습적으로三公에 버금가는 고관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574년(선조 7)에 선조가 경연에서 九卿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관원에 해당하는지 하문하자, 柳希春이 육조의 판서와 한성 판윤 및 참찬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아뢰었으며[『선조실록』 권8, 선조 7년 12월 6일(병오)], 승정원에서 소관 사무에 대한 事例·規式 등을 정리하여 편찬한 『은대편고』에서도 六曹判書와 左·右參贊, 判尹을 九卿이라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銀臺便攷』 권5, 「禮房攷 上尊號」, 「時原任大臣 六曹判書·左右參贊·判尹(以上九卿) 大提學·兩館提學·奎章閣提學二員·直提學二員·知春秋二員·同春秋二員(以上館閣堂上) 六曹參判·禮曹參議·三司長官 并出牌」. 조선시대의 구경은 모두 동반 정2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육조의 판서는 조선전기에 의정의 지휘를 받으면서 혹은 주도적으로 해당 조의 정사를 총괄하며 국정 운영을 주도하였고, 한성부 판윤은 左·右尹 이하의 관원을 지휘하면서, 도성 내의 호구·토지·치안 등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주관하였으며, 의정부 참찬은 상위 관직인 좌·우찬성과 더불어 議政을 보좌하고 낭관인 舍人과 檢詳을 지휘하면서 의정부의 운영에 참여하였다.

관계(官階)는 계속 승품되었다. 1609년(광해군 1) 12월에 정2품 상계인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품되었고, 1612년(광해군 4) 1월에 중2품 하계인 승정대부로, 다시 위성공신 2등에 책훈되면서 2단계 상승한 보국승록대부(정1품 하계)까지 승품하였다. 위성공신(衛聖功臣)이란 임진왜란 때 왕세자(광해군)를 호종하여 이천·전주에 갓던 자들을 포상한 것으로, 1등공신 10명, 2등공신 17명, 3등공신 53명이었다. 황신은 2등 17명 가운데 포함되었다. 위성공신 교서는 1613년(광해군 5) 3월에 반포되었다.⁶⁷ 위성공신 2등의 공식 명칭은 ‘갈충진성동덕찬모위성공신(竭忠盡誠同德贊謨衛聖功臣)’이다.

위성공신 2등에 녹훈된 황신이 받은 공신교서는 현전하고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 공신교서에 의하면, 당시 2등공신에게는 공신교축(功臣教軸)과 화상(畫像)을 내려주었고, 관작의 품계를 2등급(階)씩 올려주었으며, 그의 부모와 처자도 또한 2등급씩 올려주었다. 공신호는 적장자가 세습하여 녹을 잃지 않도록 하고, 사유의 은전을 영원히 후손 대대로 미치도록 하였다. 자식이 없으면 조카나 사위의 품계를 1등급 올려주었다. 더불어 반당(伴僮) 8인, 노비 4구, 구사(丘史) 4명, 토지[田] 30결, 은자 7냥, 비단[表裏] 1단, 내구마 1필씩을 내려주었다.⁶⁸

황신은 품계가 2등급이나 뛰어올랐기 때문에 정1품 하계인 보국승록대부가 되었다. 맡고 있는 관직인 호조판서가 정2품직이었으므로, 관계와 관직이 3등급이나 차이가 났다. 11월 22일 광해군은 여러 공신들의 가자를 계하(啓下)한 뒤 “보국 승록의 품계로도 육조 판서가 된다는 식례(武例)를

67 공신교서의 반포는 광해군 5년 3월 12일(경오)에 창덕궁 인정전에서 행해졌다(『광해군일기』 권64, 광해군 5년 3월 12일(경오)).

68 이는 황신에게 내린 공신교서에 근거한 것이다. 위성공신 교서는 이외에도 鄭琢(1526~1605)의 1등공신교서(藥圃遺稿 및 文書-衛聖功臣教書, 보물), 李誠胤(2등공신교서(李誠胤 衛聖功臣教書 및 關聯 遺物, 보물), 柳夢寅(1559~1623)의 3등공신교서(柳夢寅衛聖功臣教書, 보물), 한천두 3등공신교서(韓天斗 衛聖功臣 教書 및 肖像, 경기도 유형문화재) 등의 실물이 남아 있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밝혀 세우라는 뜻을 해조에 말하도록 하라.”고 진교하였다. 이 기사의 사론에서는 당시 훈신들이 갑자기 일품에 뛰어오른 경우가 많았으며, 박승중·황신 등이 판서에서 체직되려 하자, 조정의 의논이 그 사람들을 애석하게 여겨 이런 논의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⁶⁹ 그리고 1613년(광해군 5) 3월 6일의 인사에서 박승중은 겸 병조판서, 황신은 겸 호조판서에 제수되었다. 이 기사에도 정1품에 승진시켰기 때문에 겸 판서에 제수한다는 주기가 달려 있다.⁷⁰

1613년(광해군 5) 3월 12일에는 19공신 회맹제가 있었는데, 황신은 여기에 위성공신 2등으로 참여했다. 당시 황신의 정식 공신 호칭은 ‘갈충진성 동덕찬모 위성공신 보국승록대부 회원부원군 겸호조판서(謁忠盡誠同德贊謨衛聖功臣輔國崇祿大夫檜原府院君兼戶曹判書)’였다.⁷¹ 그런데 황신의 공신 특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613년(광해군 5)에 계축옥사가 일어났는데⁷², 황신은 서양갑 등의 고변에서 이름이 거론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종인이 그의 문하에 출입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사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⁷³ 김제남과 영창대군은

69 『광해군일기(중초본)』 권59, 광해 4년 11월 22일(임자).

70 『광해군일기(중초본)』 권64, 광해 5년 3월 6일(갑자).

71 『十九功臣會盟錄』(161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檀古朝51-나1). 한편, 동일한 명칭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十九功臣會盟錄』(1628, k2-627)은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 시기에 녹훈된 공신들을 삭훈하고 인조대에 새로 책봉된 공신들이 참여한 회맹록이기 때문에 위성공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72 정협·서양갑·박응서 등 7인이 ‘江邊七友’라고 자칭하고 한강 변에서 술을 마시며 사회를 원망하다가, 강변을 지나던 상인들의 물화를 접탈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어 사형을 받게 되자, 이이첨은 이들을 사주하여, ‘國舅 김제남과 함께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꾀하였다’고 거짓 자백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서양갑 등은 박종인이 거사에 쓸 銀子를 황신의 집에 숨겨두었다고 거짓 고변을 하였다.

73 이이첨은 황신의 반대로 대사간이 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이 일은 이조 참판 鄭賜浩가 이이첨과 절친했던 황신에게 이이첨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뒤됨이에 대해 私的으로 말해 준 데서 비롯되었다. 이때의 정황을 전해 들은 이이첨은 황신을

사사(賜死)되었고, 무고당한 여러 사람들도 모두 체포되어 삭직(削職)당했다. 황신은 광해군의 비호를 받았으나, 체차[5월 11일], 파직[5월 12일], 방귀전리(放歸田里)[7월 14일], 중도부처(中途付處)[8월 15일] 되었다가, 결국 10월 4일에 황해도 웅진현(翁津縣) 유배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황신은 유배당한 지 5년만 3년 6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 1617년(광해군 9) 3월 14일 웅진에서 돌아갔다. 향년 56세였다. 『광해군일기』에는 황신의 줄기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사관의 사론도 실려 있다.⁷⁴ 전 판서 황신이 유배지인 웅진의 적소에서 즐하였다는 소식은 4월 2일에 조정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광해군은 황신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예장(禮葬)하라고 전교하였다.⁷⁵

삭탈관직되어 유배되었다가 적소에서 죽은 황신에게 4월 13일에 발급된 추증교지가 내려갔다. 그 내용은 '갈충진성동덕찬모위성공신 보국숭록대부 회원부원군 겸 호조판서 동지춘추관사 황신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로 추증하라'이다. 추증사유는 '위성공신 2등을 추증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6년이 지난 1623년(광해군 15) 3월에 능양군(綾陽君)과 서인 일파가 주도하여 광해군과 대북파를 몰아내고 능양군을 왕으로 옹립한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이른바 인조반정이다. 인조가 즉위하면서 광해군대에 내렸던 위성공신은 모두 삭훈되었다. 황신의 위성공신 2등 공신호도 삭훈되었고, 그가 받았던 혜택도 취소되었다. 그리고 1623년(인조 1) 7월 6일에 황신에게는 새로운 추증교지가 내려갔다. 그 내용은 '송정대부 행 호조판서 황신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로 추증하

원망하고 있었는데,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황신에게 죄를 씌워 보복하였던 것이다.

74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13, 광해 9년 3월 14일(기묘), 『광해군일기[정초본]』 권113, 광해 9년 3월 14일(기묘). 중초본과 정초본의 내용이 동일하다.

75 『광해군일기[정초본]』 권114, 광해 9년 4월 2일(병신).

라'이다. 추증사유는 '원통하게 죽은 사람을 추증하는 일'이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는 2점의 황신 추증교지가 모두 남아 있다.

VI. 맺음말

이상 추포 황신의 관직 생활과 정치 활동에 대해 가계와 초기 사환, 임진왜란 당시의 관직 생활, 임진왜란 이후 선조대의 정치 활동, 광해군대의 영욕과 사후 추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선조실록과 광해군일기 외에 일차사료임에도 그동안 역사학계에서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았던 고신 고문서를 적극 활용하여 황신의 관직생활을 자세하게 재구성해 보았다.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황신은 창원황씨로 14세기 인물인 황석기의 8세손이다. 성혼의 문인으로, 1588년 27세의 나이에 중계변무의 해결로 인해 실시된 알성시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장원으로 급제했기 때문에 참외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6품 참상관 실직에 임명되었으며, 1591년에는 중계변무 해결에 공을 세운 신료들을 포상하는 광국공신의 원종공신 3등으로 추록되어 승품함으로써 정4품 상계인 봉정대부까지 올랐다. 그러나 1590년 언관으로 이산해를 탄핵하다가 고산현감으로 좌천되었고, 1591년에는 건저의 사건과 관련하여 정철의 당여로 분류되던 황신은 고산현감에서도 파직되어 선대부터 내려오던 집안의 근거지였던 강화의 촌장으로 물러났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삭탈관직되었던 황신은 고신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극복의 활약으로 7년 후인 37세에는 가선대부 전라도관찰사를 지내고 동지중추부사에까지 올랐다. 황신은 전쟁이 진행

되는 7년 동안 봉정대부[정4품 상계]에서 가선대부[종2품 하계]까지 5단계의 승자(陞資)가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관료사회에서 오르기 힘든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당상관에도 오르고, 재상급 관료의 품계인 2품도 선조의 특지로 제수받았다. 황신은 7년간 세자시강원에서 왕세자[광해군]를 지근에서 모셨고, 사역원의 한학교수를 겸직하고 어전통사도 했으며, 명나라에서 온 장수·유격들의 접반관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함께 논의했다. 또한 명나라 유격과 함께 왜군의 진영을 드나들었고, 일본에 통신사로 다녀왔다. 정유재란 시기에는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그동안 전란의 피해가 없었으나 이제 전쟁의 중심지가 된 호남을 책임지는 중책을 수행하기도 했다. 황신은 임진왜란 전의 단순한 실무관료가 아니었다. 국가의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정치 관료로 성장해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황신은 가선대부로 호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을 떠나 3년간 강화에서 여막살이를 했다. 상을 마친 후에는 한성부 우윤, 사간원 대사간 등을 지냈으며, 1601년(선조 34)에는 길운절 역옥사건의 추국에 참여한 공으로 40세의 나이에 종2품 상계인 가의대부에 까지 올랐으며, 사헌부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스승 성혼을 변호하고, 복인과 동인을 공격하다가 삭탈관직 되었으며, 죄적에 올라 7년간 폐고 당했다. 그후 황신은 1605년(선조 38)에 임진왜란 때 세운 공이 인정되어 호성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 1607년(선조 40)에는 직첩도 환급되었다. 5년 만에 복관(復官)되어 가의대부 직첩을 받았으나, 관직은 서반직인 용양 위 부호군에 불과했으며, 조정에 나간 것도 아니었다. 황신은 이 시기에 처번 재산이 있던 부여의 촌사(村舍)로 옮겨 우거(寓居)하였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광해군의 왕세자 시절 세자시강원의 관직에 있었던 황신은 고신교지를 새로 발급받았고, 광해군 습봉을 청하는 주청사의 부사로 명나라에도 다녀왔으며, 그 공으로 가자되어 정2품 하계인 자헌

대부에 올랐다. 광해군 재위 시기 초반에는 5년간이나 호조판서로 재임하면서 전후복구에 힘썼다. 관직은 정2품의 판서였지만 품계는 계속 승품하였으니, 정2품 상계인 정헌대부를 거쳐, 종1품 하계인 승정대부로, 다시 1613년에는 위성공신 2등에 책훈되면서 2단계의 승자가 이루어져 정1품 하계인 보국숭록대부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계축옥사가 일어나면서 1613년(광해군 5) 10월에 용진으로 유배되었고, 유배 당한지 5년만인 1617년(광해군 9) 3월 적소에서 56세로 졸하였다.

광해군일기에는 황신의 즐거가 자세하게 실려 있으며, 부음을 보고받은 광해군은 황신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예장하라고 전교하였다. 이때 회복된 관작은 ‘갈충진성동덕찬모위성공신 보국숭록대부 회원부원군 겸 호조판서 동지춘추관사’였고, 광해군에 의해 추증된 관직은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였다. 그런데 인조의 정변이 일어나자, 광해군대의 공신훈호가 삭훈되면서 죽은 황신의 위성공신 2등도 추탈되었다. 1623년(인조 1) 7월 6일에 황신에게 새로 내린 추증고지에서는 황신의 생전 최종 직함이 ‘승정대부 행 호조판서’이고, 추증된 직함은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로 바뀌었다.

조선시대 관제는 조선초기에 관계(품계)를 기준으로 정비되어, 경국대전 체제의 동반(문반) 관계는 종9품 장사랑부터 정1품 상계인 대광보국숭록대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30단계로 구성되었고, 이는 조선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참하(參下)는 근무 일수 450일을 채우고 포폄이 3고 2상인 자, 참상(參上)은 근무 일수 900일을 채우고 포폄이 5고 3상인 자를 가자한다는 순자법만으로는 참상관에 오르고 당상관에 오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황신의 경우에는 과거에 장원급제함으로써 참하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6품의 참상관에 임용되었으며, 사환을 시작한지 3년 만에 품계가

낭(郎)에서 4품인 대부(大夫)의 반열에 오르고, 8년 만에 정3품 상계인 당상관이 되었고, 10년도 안되어 2품의 재상급 관료가 되었다. 이는 사가(仕加)에 의한 승품과 함께 제술과 외국어 구사 능력으로 인한 외교업무 수행으로 여러 차례 별가(別加)를 받은 결과였다. 특히 그의 능력은 임진왜란 극복과 대명·대일 외교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선조~광해군대에 관직 생활을 한 황신은 스승 성훈과 이이, 정철 등과의 연고로 인해 동서분당 초기부터 서인으로 활동했다. 언관으로 있을 때에는 동인 이산해를 탄핵하다가 좌천되었고, 정철의 건저의 사건 때에는 정철과 같은 당여로 간주되어 파직당했다. 임란 후 선조대에는 복인 정인홍 세력이 성훈을 비난하자 이를 변호하고 복인과 동인을 공격하다가 탄핵을 받아 삭탈관직되었다. 광해군 즉위 후 다시 중용되어 호조판서의 직을 5년간이나 수행하였고 위성공신에도 책봉되었으나, 계축옥사로 유배되어 적소에서 즐겼다. 사실 황신은 광해군의 왕세자 시절 세자시강원에서 오래 근무했고, 위성공신에도 책훈되었으니, '광해군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당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사후 후대에는 인조대의 서인 세력에 의해 광해군과의 관계는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부정되고 인조에 의해 신원된 내용은 강조되는 등 역사적 실재와는 다른 방향으로 '기억'되어 왔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成宗實錄』, 『中宗實錄』,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光海君日記[중초본]』, 『光海君日記[정초본]』, 『仁祖實錄』, 『承政院日記』.

『世宗實錄地理志』, 『經國大典』, 『銀臺便攷』, 『司馬榜目』.

『默齋日記』, 『秋浦集』, 『月沙集』, 『象村稿』, 『宋子大全』, 『明齋先生遺稿』.

『十九功臣會盟錄』(161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51-나1).

『十九功臣會盟錄』(1628,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k2-627).

2. 단행본

국립민속박물관, 『창원황씨고문서』. 1998.

이성무, 『朝鮮初期 兩班研究』. 서울: 일조각, 198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신: 조선시대의 임명문서 읽기』.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3. 논문

권인용, 「明中期 朝鮮의 宗系辨証와 對明外交: 權檄의 『朝天錄』을 中心으로」. 『명청사연구』 24, 2005, 93~116쪽.

김경록, 「조선초기 중계변무의 전개양상과 대명관계」. 『국사관논총』 108, 2006, 147~183쪽.

김경수, 「조선조 외사의 설치와 운영」. 『역사학보』 154, 1997, 105~135쪽.

노인환, 「조선 중기 무신 나덕현의 관직 활동과 현양: 나주 나주나씨 나덕현의 고문서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61, 2021, 145~178쪽.

박성호, 「새로 발견된 김한계, 배임 朝謝文書와 조선초기 오품이하 告身の 변천」. 『국학연구』 32, 2017, 49~89쪽.

_____, 「현재 전하고 있는 王旨의 眞僞 고찰」. 『정신문화연구』 33(3), 2010, 171~202쪽.

박우훈, 「추포 황신의 삶과 문학」. 『한문학논집』 12, 1994, 361~387쪽.

방기철, 「추포 황신의 대일인식」. 『한국 사상과 문화』 74, 2014, 131~154쪽.

- 심영환, 「高麗 景宗元年(975) 金傳告身 分析」, 『書誌學報』 31, 2007, 87~113쪽.
- _____, 「朝鮮初期 草書告身 研究」, 『古文書研究』 24, 2004, 181~204쪽.
-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研究』 30, 2007, 93~124쪽.
- 이문현, 「16세기의 별급관행: 황신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상현, 「대역죄인 告身の 殘存事由에 대한 일고찰: 김종직·정인홍 고신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3, 2013, 101~129쪽.
- 이승현, 「조선 초기 고신 추탈 및 환급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57, 2018, 77~105쪽.
- 임선빈, 「16세기 行堂 尹復의 관직생활: 告身 활용을 위한 제언」, 『역사민속학』 54, 2018, 183~216쪽.
- 정구복,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研究』 9·10, 1996, 53~65쪽.
- 최승희, 「조선시대 양반의 代加制」, 『진단학보』 60, 1985, 1~32쪽.
- 矢木毅, 「高麗時代の銓選と告身」, 『東洋史研究』 59-2, 2000, 1~30쪽.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 중기의 문신관료인 황신(黃愼)의 관직 생활과 정치 활동에 대해 살핀 글이다. 조선왕조실록과 행장(行狀) 외에 그동안 역사학계에서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고신(告身) 고문서를 적극 활용하여 그의 가계와 초기의 관직생활, 임진왜란 당시의 관직생활, 임진왜란 이후 선조대의 정치활동, 광해군대의 영욕과 사후 추숭의 순서로 황신의 관직생활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문과에 장원급제한 황신은 사가(仕加)에 의한 승품과 함께 임진왜란의 전란기에 필요했던 제술과 외국어 구사 능력으로 인한 외교업무 수행으로 여러 차례 별가(別加)를 받으면서 고속 승진 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황신은 임진왜란 극복과 대명·대일 외교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러나 선조대의 동서분당으로 인해 황신의 삶도 당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황신의 삶은 서인(西人)이면서도 광해군과 밀접한 연고를 지니고 있었으나, 사후 후대에는 인조대의 서인 세력에 의해 광해군과의 관계는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부정되었고, 인조에 의해 신원된 내용만 강조되는 등 역사적 실재(實在)와는 다른 방향으로 '기억'되어 왔다.

투고일 2022. 12. 16.

심사일 2023. 2. 1.

게재 확정일 2023. 2. 15.

주제어(keywords) 황신(黃愼, Hwang Shin), 관직생활(governmental life), 정치활동(political activities), 고신(告身, Gosin), 임진왜란(Imjin War)

Abstract

Chupo Hwang Shin's Life and Political Activities

Yim, Seon-bin

This paper examines the life and political activities of Hwang Shin(黃慎), a civil official who lived during the Middle Joseon Dynasty. Using Gosin(告身-certificates of appointment for the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in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to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Haengjang(行狀-posthumous profile), Hwang Shin's life was reconstructed in order of his family and government career in his early years, governmental life during the Imjin War, political activities during King Seonjo's reign after the Imjin War, dishonor during King Gwanghae-gun's reign, and glorification after his death. Hwang Shin, who was the first candidate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Munkwa), confirmed that he was quickly promoted for his diplomatic work due to his skills and foreign language skills required during the Imjin War. He shone more brightly during the Imjin War and in diplomacy with Ming and Japan. However, Hwang Shin's life was not free from political disputes due to the East-West factional strife (tangjaeng)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Hwang Shin's life was closely related to Gwanghae-gun, but after his death, his relationship with Gwanghae-gun was intentionally reduced or denied by the School of the Westerner(西人) forces of King Injo's reign, and only the content identified by King Injo was emphasized. Eventually, memories of Hwang Shin varied over time, differing from historical reality.

